기상청 | 보도자료 | 대한민국 대체불가

보도시점 2026. 8. 25.(화) 15:00 배포 2026. 8. 25.(화) 09:00

"급변하는 날씨 잡을 케이(K)-기상예측모델" 기상청, 학·연 전문가와 수치예보 혁신에 머리 맞댄다

-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부터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
- 중장기 수치예보 업무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종합토론 진행

기상청(청장 이미선) 수치예보센터는 수치예보기술 발전과 중장기 업무 추진 전략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'제3기 수치예보 자문위원회'를 구성하고, 8월 25일(화) 대전 케이더블유(KW)컨벤션에서 「**2026년 수치예보 자문위원회**」를 개최하였다.

수치예보 자문위원회는 2021년부터 구성·운영 중이며,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수치예보 자문위원회는 대기과학 및 수치모델링 분야뿐만 아니라, 인공지능(AI) 기상예측 등 첨단 융합 분야의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되었다. 위원들은 2년간(2026.7.~2028.6.)의 임기 동안 **기상청 수치예보 업무 개선** 및 **수치예보자료 활용 확대**를 위한 **전문적인 기술 자문과 정책 제언**을 수행하게 된다.

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수치예보 정책 및 기술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. 먼저, 기상청 수치예보센터에서 **△수치예보센터의 주요 성과와 차세대수치예보모델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**, **△수치예보모델 예보활용 현황**, **△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도구(Agentic AI) 기반 수치예보 생태계**에 대해 발표하였다. 이어서 기존 수치예측모델과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치예보 발전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.

이미선 기상청장은 “기후위기 시대에 **수치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기술**이자 **다분야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국가 재난 대응의 필수 기반**”이라며, “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제언을 바탕으로 **수치예보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**, 중장기 업무 **발전 전략을 견고히 수립**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2026년 수치예보 자문위원회 사진

담당 부서	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세영 (042-481-7520)
		담당자	사무관	강성란 (042-481-751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2026년 수치예보 자문위원회 사진**

| 수치예보 자문위원회 |

| 단체사진 |

※ 사진 기상청 제공